

시민일보

HOME > 지역소식 > 경인권

경기도, '비정규직 동아리'에 2억4000만원 쏟는다

손우정 기자 ✉ / 기사작성 : 2022-04-06 12:51:14

수원·안산등 4개 권역별 사업수행자 선정 문화행사비용 지원... 발표회·전시회등 성과 공유도

[의정부=손우정 기자] 경기도는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해 4개 기관과 함께 '2022년 비정규직 동아리 지원사업'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.

올해는 공모를 통해 ▲남동권역 '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' ▲남서권역 '안산시 비정규직 지원센터' ▲북동권역 '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' ▲북서권역 '파주노동희망센터' 등 4 곳을 권역별 사업 수행자로 선정했다.

'남동권'은 수원·성남·용인·안성·이천·여주·광주·하남·양평·평택 10개 시·군, '남서권'은 김포·부천·광명·시흥·안산·과천·안양·군포·의왕·화성·오산 11개 시·군, '북동권'은 가평·포천·구리·남양주·동두천·연천·양주 7개 시·군, '북서권'은 고양·파주·의정부 3개 시·군이 해당한다.

각 사업 수행자는 투명·공정한 공모와 심사를 통해 올 한해 지원받을 비정규직 동아리를 선정, 직종·분야별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돕게 된다.

선정된 동아리는 사업 수행자를 통해 동아리 운영과 문화행사 개최비 등을 지원받고, 전문가 지원단을 통해 동아리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. 이 밖에도 합동공연, 발표회, 전시회 등 성과 공유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.

이를 위해 총 2억4000만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.

남동권, 남서권이 각각 7000만원, 북동권, 북서권이 각각 5000만원이 지원된다.

도는 이번 사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재충전과 휴식, 문화·예술 활동 활성화, 노동자 간 연대 의식 강화를 도모해 노동인권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[저작권자 © 시민일보.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 - <http://www.siminilbo.co.kr>]